



옛이야기 속에서 생각 찾기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옛이야기에서 새로운 의미와 생각을 발견하는 책이다. 허술하지만 날카롭고, 재미있지만 황당한 옛이야기에 담겨 있는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다르게 생각하기', '새롭게 살펴보기', '살포시 이해하기', '마음으로 보기'의 네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빛깔의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겨레 옛이야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경림 시인이 전국 각지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과 <삼국유사>, <삼국사기>
에 실렸던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모으고, 세심하
게 가려내어 24편의 옛이야기를 엄선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하였다. '별주부전'이나 '토
끼의 재판'의 원류가 되는 이야기를 포함해 우리
옛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정확한 문
장으로 재구성하였고 오치근 화백의 그림을 함께
실어 이야기에 재미와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방귀쟁이 며느리

방귀에 대한 민담을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엮었다. 예스러운 일러스트가 함께 어우러진
다. 표지는 신원복의 미인도 를 빌어 오고,
앞부분에서 방귀를 피해 달아나는 남녀는 김득
신의 야코도추 속 인물들이다. 세로쓰기
편집 또한 옛맛을 물씬 풍긴다.





괴보 바보 옛이야기

원님이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 내는 두누게끼를 지
혜롭게 풀어내는 아이 이야기나, 맛있는 건 혼자
속속 먹는 훈장님이 자기 잘못을 느느로 깨닫도록 괴
를 내는 제자 이야기처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괴보 이야기와, 장에 가서 벼를 팔아 오랬더니 등
구나무한테 벼를 훔쳐 돌려 주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
는 바보 신랑 이야기 등 바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옛이야기를 옛이야기답게, 입맛을 살려 읽기 쉬게
쓴 점은 모두 같다. 그러면서 글쓴이에 따라 조금
씩 다른 색깔이 있다. 글쓴이마다 다른 글맛을 살
펴서 읽는 재미를 더해 줄 것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본디의 모습 그대로, 입말문학으로서 옛이야기의 특성을 고스란히 살려서 제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국민 옛이야기'로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정본 그림책을 만들고자 했다. 목판화 기법의 배경과 독자와 등장인물 간의 눈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앵글을 구사한 화면들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연극무대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옛이야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했다.





신선바위 똥바위

전라남도 곡성군 동악산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고쳐 쓴 이야기다. 이 지방에서는 가뭄이 들면
신성한 바위에다 똥을 싸서 비를 내리도록 했
다. 똥으로 신성한 바위를 더럽히면 화가 난 신
선이 비를 내려 징화해 줄 거라는 믿음에서였
다. 어려움을 넉넉한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전라도
사람들의 해학을 통해 가난과 날씨에 맞서는
우리 조상들의 기막힌 재치를 엿볼 수 있다.





바리공주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승희 교수가 새로 풀어 낸 바리공주 이야기.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지지만 훗날 죽을 병에 걸린 부모를 구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바리공주의 웅장한 모험담이 힘있게 펼쳐진다. 바리공주의 원형인 무가 형식을 그대로 살려 써 살아 있는 입말과 시적 리듬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동양적이지만 화려한 색감의 그림은 바리공주의 감정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옛날옛날에 문 따라 들락날락

생활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
에 얽힌 설화를 찾아내어 역사 속 민중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 책은 문에 얽힌 10여 개의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에
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문물 생생한 사진으로 소
개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호랑이와 효자

서울과 고양 사이 북한산 자락에 전해 오는 효자
박태성과 산군 호랑이의 애뜻한 이야기. '효자되
의 박 효자 전설'(<고양군지>, 1987)과 조선 명조
때 살았던 실제 인물 박태성의 이야기를 바탕
으로 쓰였다. 찡충듯 말 달리듯 하는 백성민 화
백의 힘찬 붓질이, 태산 같고 강물 같고 바람
같은 조선 호랑이를 코앞에서 만난 듯 생생히 살
려 놓았다.





마고할미

우리 나라 천지개벽의 신화의 또다른 이야기이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하는 어린이들의 의문을 풀어준다. 세상을 만든 거대한 여신 마고할미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은 물론 용
대한 기상을 심어준다. 마고할미의 거대한 몸
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로 3장씩 펼칠
수 있는 독특한 제작기법을 사용했다.

